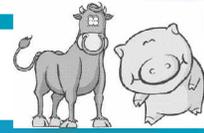


# 소· 돼지 가격전망



## 소

### 당분간 보험세 유지



우려했던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유통은 이뤄지지 않았다. 2003년 12월 미국의 광우병 발생 이후 2년 10개월만에 재개된 미국산 쇠고기에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유발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한다면 미국산 쇠고기는 국내에 유통되지 못했다. 검역과정에서 발견된 핏조각으로 인해 전량 폐기·반송 조치되었다. 미국산 쇠고기인해 국내 소 값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됐지만 미국산 쇠고기의 핏조각으로 인한 폐기·반송 조치와 연말연시 소비량 증가를 예상하여 소 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높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소 값은 당분간 보험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산지의 소 사육두수의 증가했고 앞으로 입실한 송아지의 수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중의 소미 심리도 크게 호전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큰 폭의 가격 상승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산 쇠고기의 뼈 문제는 상당기간 호재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미국산 쇠고기는 뼈 문제를 포함한 SRM으로 국내 소비자들은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유통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국내 소 값에 미치는 영향을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내 사육두수의 증가로 인한 과다 존하만 방지한다면 큰 폭의 가격 상승은 어렵더라도 당분간 소 값은 보험세의 안정된 흐름 속에 소폭의 등락을 보일 전망이다.

## 돼지

### 소비 증가, 돼지값 강세.

12월은 전통적으로 돼지 값이 월초에는 가격이 주춤하다가 중순을 기점으로 가격이 올라 월말에 최고점에 다다르는 시기이다. 월초 출하 물량은 많은 반면에 막바지에 이른 김장절로 인해 대량의 소비가 이뤄지지 않는다. 그러나 송년보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순 이후부터 소비가 되살아나 가격이 오르는 패턴을 보였다. 올해도 이와 같은 가격 상승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예년에 비해 국내외적으로 가격 상승 요인이 많아 큰 폭의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국내에선 질병으로 인한 폐사율이 높아지고 있고 신규 축사 건립도 힘들어져 사육두수는 증가했으나 도축두수는 감소하여 존하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 또한 지난달 익산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도 인해 닭고기 소비가 돼지고기 소비로 이동하는 대체 소비가 발생하고 있다. 밖으로는 미국산 쇠고기의 본격 수입 일정이 뼈문제로 인해 자질을 빚어 차후 이분제가 해결돼 국내 시장에 유통되더라도 안전성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유럽에서 발생한 돈열과 돈육 수출작업장의 수입위생조건 위반으로 수출이 중단되어 당분간 유럽산 수입돈육이 국내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예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국내외적으로 돼지 가격 상승 요인만 발생하고 약재가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당분간은 고돈가가 형성돼 유지될 전망이다.

<미트뉴스 제공>

